

이천시-고카시 국제 어린이교류사업 계획서

1. 사업명 : 플랫폼즈프로젝트 (Flat Kids Project)
2. 주최·주관 : 이천문화원(대한민국)·고카시국제교류협회(일본) 공동 추진
3. 참여대상 : 이천시·고카시 관내 15세 내외 어린이. (도시별 10명 이내)
4. 사업목적 및 필요성
 - 1992년 이천문화원은 이천시와 시가라키정이 각각 양국 도예문화의 중심지라는데 착안하여 국제우호친선교류를 시작하였으며, 2004년 일본측 행정구역 개편 이후 시가라키정이 통합한 고카시와 정식으로 자매결연(2005)을 맺고 매년 교류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코로나 팬데믹 이후 직접적인 인적교류 활동이 어려워짐.
 - 양 도시의 미래인 청소년(초등학생)이 참여하는 본 사업을 통하여, 청소년들이 자율적으로 교류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스스로 상대 도시의 생활방식과 문화를 이해하고, 점차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
 - 이천 청소년(초등학교 3학년 내외)이 해외 친구에게 우리 지역을 소개하는 과정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지역알기학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며, 해외여행이 어려운 시기에서도 외국어 학습능력 증진과 지구촌 공동가치를 체득할 수 있는 체험활동이 되도록 함
5. 참가방법
 - 모집기간(7.29~8.11) 내 선착순 전화신청
-이천문화원 사무국 문화사업팀 031-635-2316
6. 사업일정

일정별	주요내용	주요추진내용
7월 초	기획회의	이천문화원·고카시관계자 사전기획회의
7월 초~7.15	일본) 참가자 모집	고카시 관내 초등학생 대상 참가자 모집
7.29~8.11	한국) 참가자 모집	이천시 관내 초등학생 대상 참가자 모집
8.16~8.23	이천·고카	학생 간 매칭 후 상호 편지,종이인형 교환
9.1~9.13	교류활동	종이인형과 다양한 체험 후 사진촬영
9.27~10.1	사진과 편지전달	해당학생에게 편지와 사진 전달

플랫키즈 프로젝트 이천시 어린이 참가자 모집

납작(Flat)한 소년, 전 세계를 여행하다.

미국 어느 마을에 '플랫 스탠리'라는 개구쟁이 소년이 살았어요. 어느 날 스탠리는 동생과 장난을 치다가 실수로 큰 게시판에 깔려버렸어요. '아이코 아파라.' 게시판 밑에서 겨우 빠져나온 스탠리는 깜짝 놀랐어요. 자신의 몸이 종이처럼 납작해졌거든요. 몸이 얇아진 스탠리는 지금부터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재미난 모험을 시작합니다. 비행기를 타지 않아도 괜찮아요. 납작한 스탠리는 종이봉투에 몸을 싣고, 우편 소포가 되어 어디든 갈 수 있거든요.



플랫 키즈 프로젝트(Flat kids project)를 소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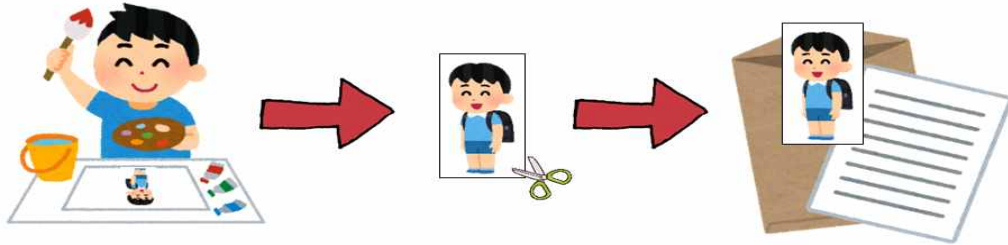
우리 친구들도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다니고 싶어요. 하지만 코로나바이러스로 당분간 해외여행은 어렵다네요. 그러면 여러분도 스탠리처럼 납작하게 변해서 여행을 떠나면 어떨까요?

'플랫 키즈 프로젝트'는 대한민국 이천시 어린이와 일본 고카시 어린이가 참가하는 국제교류행사예요. 내 모습을 그린 종이인형을 일본 친구에게 우편으로 보내고, 반대로 일본 친구는 우리 한국 친구에게 자신의 종이인형을 보낼 거예요. 납작한 일본 친구는 우리 집에서 홈스테이도 할 것이고, 나와 함께 여행하며 예쁜 추억을 남길 수 있답니다. 일본 친구도 납작한 한국 친구와 고카시를 여행하며 마음을 담은 편지와 사진을 보내기로 했어요. 어때요? 우리 같이 납작하게 변해서, 일본 친구와 여행을 떠나볼까요?



고카시에서 기다리는 일본 친구를 만나요

1. 자신의 모습을 정성껏 그리고, 가위로 오려서 종이인형을 만들어주세요. 친구가 되려면 먼저 자신을 소개하는 편지도 써야겠지요? 편지와 인형을 이천문화원으로 보내주시면 예쁘게 코팅하고 편지를 번역합니다. 이제 여행 준비 끝.



2. 일본 고카시에서 종이봉투를 타고 납작한 일본친구가 이천으로 올 거예요. 우리 집에서 머물면서 여러분의 생활을 체험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함께 밥 먹는 모습, 여행하는 모습, 운동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한국에서의 추억을 남겨주세요.



3. 한국 여행을 마친 납작한 일본 친구와 내가 쓴 편지를 봉투에 넣어 이천문화원으로 보내주세요. 일본 고카시 친구에게 다시 보내줄게요. 아마 이쯤이면 일본 여행을 마친 내 인형도 한국으로 오고 있을 거예요



4. 좋은 추억을 공유한 우리는 이제 사이좋은 친구입니다. SNS로 간간이 소식을 나눠도 좋고, 메신저로 하루 종일 수다를 떨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일본어 공부에도 도움이 되겠는걸요. 언젠가 직접 얼굴을 보고 대화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미 친구니까요.